

정답 및 해설

• 유형연습① 문학 •

정답

1	③	2	④	3	②	4	④	5	⑤
6	②	7	③	8	⑤	9	③	10	④

해설

1. [출제의도] 표현법이나 표현상의 특징 파악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③ (나)의 ‘열리고’, ‘닫힌다’,(다)의 ‘어둠’, ‘대낮’등 의미가 서로 이질적인 시어들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(나)와 (다)에는 점층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.
- ② (나)와 (다)에는 색채감이 나타나는 시어가 쓰이지 않았다.
- ④ (나)와 (다)에 독백적 어조는 드러나나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은 드러나지 않는다.
- ⑤ (나)와 (다)에는 수미상관의 구조가 쓰이지 않았다.

2. [출제의도]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④ 4연에서는 ‘문’이 ‘문’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릴 거나 닫히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‘문’이 닫히고 열린다는 통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1연에서는 ‘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’고 하였으므로 ‘문’의 특별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.
- ② 2연에서는 ‘문’이 언제나 열려 있거나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‘문’의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.
- ③ 3연에서는 ‘문이라고 해서 모두 닫히고 열리리라는 확증이 없듯’이라고 하였으므로 ‘문’이 확실히 닫히고 열릴 것이라는 확신이 나타나지 않는다.
- ⑤ 5연에서는 ‘문’이 담이나 벽을 뚫는 강인함에 대해 화자의 반감이 드러나지 않는다.

3. [출제의도] 시적 대상의 특징이나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을 파악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② ㉠은 ‘쥐’의 존재를 알려 쥐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소리이므로 적절하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㉡은 ‘사람’이나 ‘고양이’를 깨우는 소리로, ‘쥐’가 느끼는 현실의 평온함이 아니다.
- ③ ㉢은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굶주림이 있는 대조적인 상황을 드러내나 ‘쥐’의 현실에 대한 안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.
- ④ ㉣은 굶주린 ‘쥐’의 모습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의 냉혹함을 의미하지 않는다.
- ⑤ ㉤은 ‘황홀하고 불안한’과 같이 서로 모순되는 시어의 배열이 나타나지만, 이것이 먹이에 집착하는 ‘쥐’의 헛된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지 않는다.

4. [출제의도] 작품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④ (다)는 ‘쥐’의 시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알레고리의 형식을 통해 욕망 추구의 부정적 현실에 매몰된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(나)는 ‘문’과 ‘담’ 혹은 ‘벽’을 사용하여 대립적인 요소가 짝을 이루는 이항 대립을 중심으로 한 모순 형용의 아이러니를 활용하고 있으므로, 상식적 세계와는 어긋나는 상황을 기반으로 한 아이러니가 아니다.
- ② (나)에서 ‘문’이 ‘열려 있다고 해서 / 언제나 열려 있지 않다’며 일상적인 세계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제시한 것은, 말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.
- ③ (나)에서 ‘문’이 ‘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/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’라는 것은, 상호 모순성을 가진 대상들이 형성한 맥락이 아니다.
- ⑤ (다)에서 ‘거품을 물고 떨며 죽을 때까지 그칠 줄 모르는’ 식욕을 ‘쥐’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형식은 자본주의의 폐해로 인한 도시빈민의 암울하고 불행한 삶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.

5. [출제의도] 표현법이나 표현상의 특징 파악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⑤ (나)에서 ‘문은 열려 있다고 해서 언제나 열려 있지 않고, 닫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닫혀 있지 않다.’, (다)에서 ‘향기로운 쥐약’, ‘황홀하고 불안한 식욕’등의 겉으로 모순되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

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(나)에는 대구적 표현이 드러나나, (다)에는 드러나지 않는다.
- ② (나)와 (다)에는 대화체가 쓰이지 않았다.
- ③ (나)와 (다)에는 문장의 배열순서를 바꾸는 도치법이 쓰이지 않았다.
- ④ (나)와 (다)에는 의문형 문장이 쓰이지 않았다.

6. [출제의도]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② ‘문은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담이나 벽과는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는다’라고 했으므로 ㉠은 ‘문’의 능동적인 변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㉠은 ‘문’의 신속성을 의미하지 않는다.
- ③ ㉠은 ‘문’의 잠재적인 파괴력을 의미하지 않는다.
- ④ ㉠은 ‘문’의 폭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.
- ⑤ ㉠은 ‘문’의 사물에 대한 지향성과 연결을 의미하지 않는다.

7. [출제의도] 시구의 의미 파악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③ ㉠‘대낮’은 ‘쥐’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위협에 처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㉠‘사람이나 고양이’는 ‘쥐’의 직접적인 위협대상이다.
- ② ㉡‘몽둥이와 텃’은 ‘쥐’의 직접적인 위협대상이다.
- ④ ㉢‘번득이는 눈과 의심 많은 귀’는 ‘쥐’의 직접적인 위협대상이다.
- ⑤ ㉣‘끓주림’은 ‘쥐’를 위협에 처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.

8. [출제의도] 작품의 내용 파악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⑤ (나)에는 ‘문’의 약함이나 강함이 드러나지 않는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‘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’와 어느 집의 문이나 그러나 문이라고 해서 모두 닫히고 열리리라는 확증이 없듯이 서로 대비된다.
- ② ‘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하지 않고’에서 ‘문’의 고정관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드러난다.
- ③ ‘어느 집이나 문은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담이나 벽과는 다른 모양으로 자리 잡는다’에서 ‘문’의 고정관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드러난다.

- ④ ‘문의 고정성’은 고정관념을. ‘문의 유동성’은 새로운 시각을 나타내는 것이다.

9. [출제의도] 작품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③ (다)는 ‘쥐’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알레고리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발생한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(다)에서는 현대인들의 몰인정성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.
- ② (다)에서는 전통적 가치가 사라진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.
- ④ (다)에서는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현대사회의 단절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.
- ⑤ (다)에서는 현대 문명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과 동물이 처한 위기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.

10. [출제의도] 시의 표현과 내용 파악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④ (다)에는 촉각적 심상이 쓰이지 않았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‘걸음은 공기를 밟듯 나아간다.’에서 비유적 표현이 드러난다.
- ② (다)는 독백적 어조가 드러난다.
- ③ ‘구멍의 어둠 속에 정적의 숨죽임 뒤에’에서 대구적 표현이 드러난다.
- ⑤ (다)는 ‘식욕’이라는 명사형으로 종결되었다.